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3기 제1강 고려대 장하성 교수 '한국 자본주의, 정의로운 경제는 가능한가'

# “기회균등·공정 경쟁, 정치적 실천 필요 투표의 힘으로 자본주의 모순 통제해야”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17일 광주 서구 치평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기업 순환 생태계 끊어

## 나비효과처럼 개개인이 날갯짓 해야 세상 변해

“한국의 옛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지난 17일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의를 맡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한번 1등이 영원한 1등인 한국 사회는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이날 한국 경제의 위기를 조려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 고용없는 성장과 불공정한 시장의 경쟁구조, 재벌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 양극화된 경제 현실을 실랄하게 꼬집었다.

그는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큼 소수 재벌이 경제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나라가 없다”며 “가장 불평등한 나라는 미국도 지난해 ‘포브스’지가 뽑은 100대 부자 중 78명이 창업자일만큼 새로운 성공신화가 만들어지는데 한국은 100명 중 78명이 상속부자”라고 꼬집었다. 더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몸집이 다 커버린 어른들은 더 성장하기 어렵지만, 한참 성장할 어린이들의 몸집은 얼마나 클지 모른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각종 산업의 시장을 모두 장악하면서 사실상 기업의 순환 생태계가 끊겼다”고 대기업의 행태를 비판했다.

장 교수는 또 한국의 자본주의가 ‘고장’난 원인에 대해 임금 격차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지적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근로자들의 소득 불평등 격차는 지속적으로 나빠졌고, 이는 저임금 노동자, 임시고용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높기 때문”이라며 “임금 노동자 중 45%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딱 절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더 안타까운 것은 청년 세대 첫 일자리의 36%가 비정규직”이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반증”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가 이같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결과적으로 중산층은 줄고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줄어들면서 가계소득이 늘지 않고, 소득재분배도 되지 않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에 대해 “기업이 만든 이익과 부가가치를 분배하지 않고 기업이 보유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역할은 얻은 이익을 투자해서 미래 성장과 미래 고용을 만드는 것인데 2000년 들어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이며 사내유보율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자본주의’를 위해서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분배가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실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자본주의의 실패 이전에 한국 민주주의의 실패”라면서 “국민들이 투표의 힘으로 자본주의를 통제해야 하지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서민이 자신들의 경제적 계층에 맞는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때면 계층 투표를 해야하는데, 용공·반공만 나오면 빈곤을 잇는다”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맞는 전략적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나비효과’처럼 보통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함께 개개인이 날갯짓을 한다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하성 교수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알바니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 스쿨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휴스턴대학교 경영대학 재무학교 교수를 시작으로 교단에 섰다.

그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6년 참여연대에서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내 처음으로 ‘경제민주화’ 시민운동을 실천했다.

또한, 김대중 15대 대통령 당선자의 ‘국민의 정부 경제개혁정책’ 총괄책임자와 안철수 18대 대통령 예비후보의 ‘진심캠프 국민정책’ 본부장으로서 일하면서 국가 경제정책을 설계하기도 했다.

다음주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강의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비즈니스 프로-파일링 대화와 설득 기법’ 주제로 열린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 설계자가 소개하는 ‘靑 문화전당’

4월 3~4일 국제학술포럼...우규승 건축가 시민들과 만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인 우규승 건축가가 시민들에게 문화전당의 설계 개념과 건축철학을 소개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오는 4월3일부터 4일까지 문화전당 내 문화정보원에서 ‘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비전포럼’을 개최한다. 문화전당에서 국제학술포럼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축가 우규승

별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김구림씨가 이강용씨와 퍼포먼스를 펼치고 세계적 건축가인 구마 겐코(일본)씨와 국내 건축가 조남호, 황동욱씨가 현장에서 건축 과정을 선보이는 건축 워크숍을 진행한다.

행사는 베네딕트 앤더슨(미 코넬대 명예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포럼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특별 프로그램(문화행사)으로 진행된다.

우규승 건축가는 특별프로그램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전당 투어프로그램(빛을 향한 동행)을 진행한다. 그는 ‘빛의 숲’을 개념으로 설계한 문화전당 곳곳을 설명한다. 우 건축가가 직접 현장에서 문화전당을 소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별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김구림씨가 이강용씨와 퍼포먼스를 펼치고 세계적 건축가인 구마 겐코(일본)씨와 국내 건축가 조남호, 황동욱씨가 현장에서 건축 과정을 선보이는 건축 워크숍을 진행한다.

포럼에는 세계적 석학인 베네딕트 앤더슨 교수가 참석해 ‘후기민족주의, 국가 및 시민권과 이후에 대한 고찰’을 주제 발표한다. 그는 민족을 근대 이후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구성된 ‘상상의 공동체’라고 정의한 민족주의 연구의 거장이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아시아문화개발원 홈페이지(www.iacd.kr)를 이용하면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

## 정부,靑 문화전당 특별법 공포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아특법)을 공포했다.

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을 국가가 운영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된 아특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데 정부의 후속 조치다. 이날 법이 관보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아시아문화원 설립 작업이 법적으로 개시된다. 나머지 아특법 개정안은 이날을 기점으로 한달 뒤 효력이 발생된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지난 11일 정기가 사회를 열어 아시아문화원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로 ‘아시아문화개발원’ 해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아특법은 오는 2023년까지 광주에서 시행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토대로,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문화전당을 정부 기관인 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하되 아시아문화원에 업무를 일부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KTX 개통에 항공사 요금 할인

23일부터 성수기 제외 광주~김포 등 5개 노선

다음달 2일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항공업계는 전국 5개 노선 일부 운항편수의 요금을 KTX 요금보다 싸게 책정해 ‘항공 수요’ 지키기에 나섰다.

항공 요금이 열차 요금보다 싸게 매겨진 것과 사실상 처음 있는 일로, 열차와 비행기 간 ‘요금 전쟁’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한국공항공사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광주~김포, 여수~김포, 김해~김포, 울산~김포, 사천~김포 등 김포를 기·종점으로 하는 5개 노선 일부 운항편수의 항공요금이 2만~3만여 원 가량 할인된다.

다만 성수기를 제외한 월·화·수·목요일에 적용된다. 어느 시간대 운항 편수에

할인요금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들이 협의 중이다.

공항공사 측 잠정안을 보면 하루 14회 왕복 운항하는 광주~김포 노선의 경우 4편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며 종전 6만8200원(평일 기준, 공항세·유류할증료 포함)이던 요금이 4만1100원(대한항공)~4만2000원(아시아나항공)으로 무려 38%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광주송정~울산 KTX 요금 4만 6800원보다 더 싸게 매겨진 것이다.

하루 16회 왕복 운항하는 여수~김포 노선의 요금도 4편에 대해 종전 7만6200원에서 4만9200원으로 할인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인시력 교정술 시행

6/7층 라식센터  
4/5층 수술센터  
2/3층 외래진료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 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노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운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